‘메르스 때문에’…동물들도 수난시대

단봉 낙타·과일 박쥐 감염 무관 불구 매개원으로 지목

광주 우치동물원 “불안 느끼는 관람객 있어 격리 조치”

“우리가 무슨 죄인가요? 전염병만 나돌면 우린 독방(내실) 신세랍니다.”

1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생룡동 우치동물원 낙타 우리엔 수컷 단봉낙타가 보이지 않았다. 30평 남짓한 우리엔 단봉낙타·들소·큰뿔소가 생활하고 있다.

한 마리당 3000만 원이 넘는 단봉낙타는 지난달 22일부터 내실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

사육사가 우리를 청소할 시간을 이용, 잠시 방사장에서 콧바람을 쐬는 것이 이 낙타에게는 유일한 바깥 나들이다. 단봉낙타가 답답한 내실 생활을 하는 이유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

이 낙타는 지난 1996년 서울대공원에서 교환으로 데려온 동물로, 메르스 감염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매개원으로 낙타가 지목되면서 불안을 느끼는 관람객이 있어 당분간 내실에 있는 것으로 조치한 것이다.

과일 박쥐도 독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단봉낙타와 달리 내실에서 생활하는 과일박쥐는 사육사들로부터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낙타와 함께 박쥐도 메르스 감염 매개체로 지목되면서다.

과일박쥐 우리는 다행히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유리창이 설치돼 있긴 하지만 우치동물원 측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관람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전염병이 나돌 때마다 애꿎은 동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동물들이 좁은 곳에 모여 있는 데다 외부인이 상시로 드나드는 동물원은 바이러스 발생 시 폐쇄 또는 내실 격리조치 외엔 뾰족한 방역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치동물원은 지난해 AI가 나돌면서 입구에 방역소를 설치한 뒤 독수리·해오라기·흥부리황새·홍학·황금계 등 조류사 출입을 제한했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AI 여파로 조류사 관람을 제한했었다.

텅빈 낙타 우리 1일 광주시 북구 생룡동 우치동물원 단봉낙타 우리가 메르스 여파로 텅 비어 있다. 우치동물원 측은 지난달 22일부터 메르스 감염 매개체로 지목된 단봉낙타를 내실에 격리조치했다. 〈우치동물원 제공〉

우치동물원은 또 지난 2011년 1월 8일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우치동물원은 사슴·염소 등 구제역과 관련 있는 전시동물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을 마무리한 뒤 47일 만에 재개장했다.

우치동물원은 지난 2007년 사스가 유행하자 고양이과 동물에 대한 관람 조치를 제한했었다. 사스의 매개 동물로 사향고양이·흰족제비 등이 거론되면서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동물원에서 전시 중인 동물들은 국내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많은데, 각종 전염병과 사실상 무관하지만 관람객들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실 격리조치를 취하는 등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5:19 해짐 19:42 달뜸 19:12 달짐 05:02

반가운 비소식

저기압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우량 5~20㎜.

◇지역별 날씨 (℃)

광 주	흐림	18/29	보 성	차차흐려져비	15/23
목 포	흐림	17/26	순 천	차차흐려져비	17/25
여 수	차차흐려져비	17/21	영 광	흐림	16/28
나 주	흐림	16/29	진 도	차차흐려져비	17/23
완 도	차차흐려져비	17/23	전 주	흐림	16/29
구 례	흐림	15/27	군 산	흐림	17/25
강 진	차차흐려져비	17/23	남 원	흐림	16/28
해 남	차차흐려져비	17/23	흑산도	흐림	16/21
장 성	흐림	15/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	0.5	동~남동	0.5~1.0
	먼바다	남동~남	0.5~1.5	동~남동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	동~남동	0.5~1.5
	먼바다(동)	남동~남	1.0~1.5	동~남동	1.0~2.0
	먼바다(서)	남서~서	0.5~1.5	동~남동	1.0~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1:54	07:13
	13:52	19:13
여수	08:42	02:46
	21:19	14:38

◇생활지수

수면	30
운동	40
빨래	70

◇주간 날씨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18/29	16/31	18/29	17/30	18/30	18/30	18/28

메르스 예방 행동지침서 부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이 빨라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1일 광주시 북구보건소(소장 김은숙) 질병관리팀직원들이 중흥동의 한 내과병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지침서를 붙이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지역 병·의원 500여개소에 행동지침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산 정상 오는 20일 개방

올들어 두번째

올 들어 두 번째로 무등산 정상을 둘러보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무등산 정상 지왕·인왕봉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방 코스는 누에봉~부대 정문을 통과한 뒤 지왕·인왕봉을 둘러보고 되돌아오는 0.8㎞ 구간이다.

정상 개방에 따른 서석대 주변 환경훼손 우려 및 여름철 무더위를 감안, 녹음이 있는 구간을 개방 코스로 선택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광주시는 개방에 맞춰 시내버스 증편과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는 한편, 소방헬기와 119구급차량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 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키로 했다”면서 “군부대 영내에 있으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당한 모의토익시험 거부하자”

전남대 1~2년생 대상 취업경쟁력 높이려 교양과목 지정

학생단체·총학 “수강권 침해” 비판 ‘백지투쟁’ 벌여 관심

전남대 학생들이 중간 고사를 앞두고 ‘모의토익 시험을 치르지 말자’는 시위(?)를 진행중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전남대 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은 최근 전남대에서 ‘백지 투쟁 홍보 문화제’를 열고 해당 과목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토익 시험지에 이름·학번만 쓰고 제출하는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20명 재학생들로 구성된 해당 단체는 지난해부터 1인 피켓시위, 인권위 진정 등을 통해 해당 시험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대학 총학생회도 지난 3월 해당 과목을 선택제로 전환하는 안건을 학생 총회에 붙여 통과시키는 한편, ‘백지만 제출하는’ 시위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지 투쟁 참여 인증샷(사진)을 올리는 운동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과목은 전남대가 1~2학년 학생들의 토익성적을 향상시켜 취업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했다.

전남대는 4회 치르는 모의 토익 시험 중 2회 이상 응시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않고 졸업도 할 수 없게 했다. 750점 이상 받는 학생들은 A+ 학점을, ▲700점 이상~750점 미만 A ▲600점 이상~700점 미만 B+ ▲500점 이상~600점 미만 B ▲500점 미만 C+ 등으로 학점을 정해놓았다. 수강 선택권도 없는데다, 해당 교수에게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형태가 아니라 알아서 공부해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획일적 교육 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장미(전남대 철학과 2년)씨는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닌데 시험만 응시하라는 것은 수강권을 침해하고 대학 초년생부터 취업전쟁으로 내모는 것으로 국립대가 지향해야할 교육이냐”고 비판했다.

학교측은 취업이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학생의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과목임에도, 취지를 이해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1학기 시험을 치러야 하는 대상 학생들은 2학년 3039명, 1학년 4558명 등 총 7597명이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